

The Meaning of Spirituality in Buddhist Education in an Age of Loss of Religiosity

Joonhee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In this paper, I diagnose the de-religionization that characterizes as a result of the loss of religiosity. I will present the concepts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in Buddhism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Buddhism and propose a specific methodology for Buddhist spirituality education.

[Contents] I defined Buddhist religiosity by analyzing the Buddha's preaching declaration(傳道宣言) and the concept of kusala. Among them, the social dimension is proposed as the concept of Buddhist religiosity, and the personal dimension is proposed as the concept of spirituality. Through this, I argued that the origin of Buddhist religiosity lies in the Proclamation. And I found the specific meaning of 'Buddhist spirituality' in the concept of kusala, and revealed that 'eightfold path' is suitable as a specific method of Buddhist spiritual education.

[Conclusions] Buddhist religiosity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Buddhism pursued by the Buddha, and it is the 'socialization of enlightenment' shown in the 'Proclamation'. Spirituality, as a life-changing principle, is the process of enlightenment: religiosity manifests as a function of socialization and healing, while spirituality manifests as inner wholeness.

[Keywords] De-religionization, Religiosity, Spirituality, Preaching declaration(傳道宣言), Kusala

* Corresponding to Joonhee Kim, (Lecturer, Institute of Liberal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pianistjkim@in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성 상실의 시대, 불교교육에서 영성의 의미

김준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대 한국사회의 특징인 탈종교화를 ‘종교성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불교의 종교성과 영성 개념을 초기불교 관점에서 제시하고, 불교의 영성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필자는 ‘붓다의 전도선언’과 ‘kusala 개념’을 분석하여 불교의 종교성을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적 차원의 내용을 불교의 종교성 개념으로, 개인적 차원의 내용을 영성 개념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의 종교성의 근원이 ‘전도선언’에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개념 가운데 바람직한 덕성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kusala개념에서 ‘불교 영성’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았으며, 불교 영성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가 적합함을 밝혔다.

[결론] 불교의 종교성은 붓다가 추구한 불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전도선언에 나타난 ‘깨달음의 사회화’이다. 영성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성은 사회성과 치유의 기능으로 나타나고, 영성은 내면의 온전함으로 드러난다.

[주제어] 탈종교, 종교성, 영성, 전도선언, 쿠살라(kusala)

I. 서론

AI 시대, 탈종교화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등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다. 이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나 AI시대가 산업구조의 변혁을 통한 새로운 시대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탈종교화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사이의 복잡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탈종교화가 화두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탈종교화는 왜 문제인가? 현재 대중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를 말한다.

탈종교화와 인문학의 위기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인문학의 위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대학에서 인문계열 학과의 몰락으로 증명된다. 많은 대학에서 철학과를 필두로 역사학과, 윤리학과, 어문계열학과 등이 줄줄이 폐과되거나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

		종교인(현재 종교 믿는 사람) 비율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성별	전체	44%	49%	47%	54%	50%	40%
	남성	34%	40%	36%	44%	44%	34%
	여성	53%	58%	58%	63%	57%	56%
연령별	19~29세	36%	39%	36%	45%	31%	22%
	30대	45%	46%	47%	49%	38%	30%
	40대	49%	54%	53%	57%	51%	32%
	50대	53%	58%	56%	62%	60%	43%
	60대 이상					68%	59%

- 19~29세(이하 '20대')의 1984~2004년 수치는 18~24세, 25~29세 조사 결과의 평균
 - 1984~2004년의 50대는 50대 이상 의미. 2014년부터 50대와 60대 이상 별도 구분
 - 2014년의 60대는 2004년의 50대, 1984년의 20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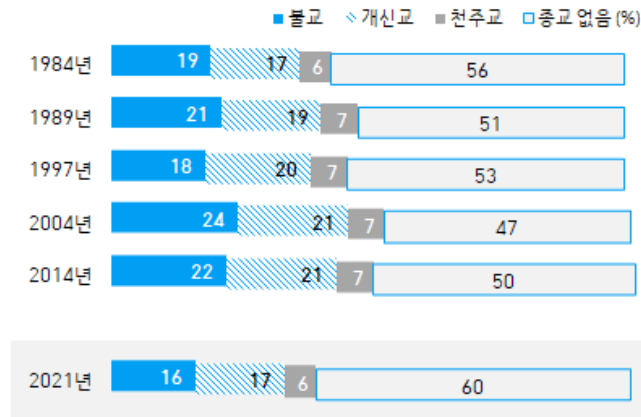
[도표 1] 종교인 비율 1984-2021

[Figure 1] Percentage of Religious People 1984-2021

그렇다면 종교의 경우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학문이나 교육으로서의 종교 이전에, 개인의 종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종교인의 비율이 50%였는데 2021년 40%로 줄어들었다. 종교인의 급격한 감소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세대에서 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¹⁾

그리고 오른쪽 [도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별 변화는 불교가 가장 두드러진다. 2004년 24%에서 2021년 16%로 7년 사이에 8%나 급감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른바 청년층의 불교 인구 감소 수치이다.

1) www.gallup.co.kr.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를 참조하라. 본문의 아래 [도표 1], [도표 2], [도표 3]의 출처는 모두 갤럽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도표 2] 종교 분포 1984-2021
[Figure 2] Religious Distribution 1984-2021

한편 아래 [도표 3]과 같이, 청년층의 불교인 수는 다른 종교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탈종교 현상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때, 왜 불교에서만 유독 높은 비율로 신도수가 급감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2021년 3월 18일~4월 7일		사례수 (명)	현재 믿는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없음
전체		1,500	16%	17%	6%	0.4%	60%
성별	남성	743	12%	16%	5%	1%	66%
	여성	757	20%	19%	7%	0%	54%
연령별	19~29세	251	4%	14%	3%	1%	78%
	30대	235	6%	19%	5%		70%
	40대	284	11%	15%	6%	0%	68%
	50대	297	23%	14%	6%	1%	57%
	60대 이상	432	28%	23%	8%		41%

[도표 3] 연령별 종교인 분포
[Figure 3] Distribution of religious people by age

불교의 탈종교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적다. KCI를 기준으로 ‘탈종교’와 ‘불교’를 함께 검색하면, 5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김성규의 「탈종교시대에서 불교의 현안과 과제」, 2017년 김은영의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환기 포교전략 : 현황과 방향」, 2022년 유승무의 「한국불교 위기와 미래지향적 대응 : 사부대중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2023년 이성수의 「신도 감소시대의 한국불교 현황과 전망」, 2019년 조기룡의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와 한국불교의 포교정향(布教定向)」이 그것이다. 이성수는 ‘사회적 역할의 강화와 포교전략의 현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김은영은 조계종의 포교 현황과 방향성을 탐색하며, 특히 ‘조계종 홍보관의

설립과 교양교육을 통한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무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참여 불교의 실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기룡은 '승가의 탈세속화와 종교성의 회복'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다른 논문들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탈종교화를 '종교성의 상실'로 보고, 불교의 탈종교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불교에서 영성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고, 영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즉 불교의 종교성은 무엇이며, 영성이란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지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II. 전도선언에 나타난 불교 교육의 방법과 목표

불교는 고타마 붓다(Gotama Buddha)의 정각에서 시작한다. 세분화하면, 정각 후 범천의 권청 에피소드, 혹은 초전법륜(初轉法輪)이나 전도선언(傳道宣言) 등을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초전법륜을 불교의 시작으로 본다. 종교의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창시자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전법륜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사(Yasa)가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곧이어 야사의 친구 54명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한다(Jeon, 2016: 122).”라고 선언한다. 깨달음을 얻은 60명의 제자들을 향해 붓다는 그 유명한 ‘전도선언’을 하게 된다. 전도선언은 붓다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선언문이자, 동시에 이 선언문에서 제자들에게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가르침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비구들이여,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라.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가르쳐라.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梵行, 도덕적 행위)을 알게 하라. 세상에는 더러움을 적게 타고난 중생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 듣게 되면 지혜를 갖춘 자가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Lee, Lee, 2016: 35; Jeon 2016: 123).

전재성은 ‘지혜를 갖춘 자가 될 것이다.’를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Jeon, 2016: 123).”라고 번역하고 있고, 강대현은 “설법을 듣는다면 가르침을 아는 이도 있을 것이다(Kang, 2014: 148).”라고 풀이한다. 원문은 “bhavissanti dhammassa aññātāro”이다. 여기에

서 aññātāro는 aññātar의 남성 주격 형태로, PTS사전에서는 “one who know, a knower of”로 제시되고 있다. 직역하면 “가르침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이다. 핵심은 ‘아는 자’, 곧 ‘지혜를 갖춘 자’라는 의미이다. 단순히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붓다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도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1> 전도선언문의 내용분석
<table 1> Analyze the content of the mission statement

목적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방법	①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②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③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가르쳐라.
	④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梵行, 도덕적 행위)을 알게 하라.
결과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 듣게 되면 지혜를 갖춘 자가 될 것이다

강대현은 전도선언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필자가 구분한 내용에서 ‘목적과 방법의 ①과 ②’을 ‘전법의 대의(Kang, 2014: 149)’로 제시한다. 하지만 대의는 ‘목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그 목적 혹은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도선언에 나타난 구체적인 교육방법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전도선언에 나타난 교육방법

전도선언문의 전체 내용을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붓다의 교육 방법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총 네 가지 교육 방법을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는 교수자의 마음가짐에 해당한다. 연민은 *anukampā*의 번역으로, 사전적으로는 ‘compassion, pity, mercy’이다. 이는 상대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상대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인 ‘비(悲, *karuṇā*)’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Leslie S. Greenberg · Sandra C. Paivio, 2008: 33)하게 하는 정서로 설명된다. 즉 연민심이 있어야 기꺼이, 대가 없이,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펼 수 있게 된다.

둘째,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의 의미를 살펴보자. 전제성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2)”라고 말한다. 물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법하기 위해

2) <http://www.mediabuddha.net/2015.3.26>

서'라는 풀이도 타당하다. 그러나 필자는 더 많은 뜻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도선언의 첫머리에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를 통해 붓다는 자신의 제자 60명이 자신과 같은 각자(覺者, buddha, arahan)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는 가르침은 깨달은 자에 대한 예우이자, 깨달은 자가 된 제자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붓다 자신이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홀로 가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홀로 간다는 것은 깨달은 자가 또 다른 깨달은 자를 모시지 않는다³⁾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피교육자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독립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가르쳐라.’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의 논리성을 갖추고, 내용과 형식을 잘 구성하라는 뜻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넷째,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梵行, 도덕적 행위)을 알게 하라.’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경계한 것이다. 전도선언에 자리한 60명의 아라한은 이미 완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도덕적 탁월함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교수자는 논리와 형식을 갖추어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피교육자에게 자신의 탁월한 도덕성을 드러내야 한다. 피교육자가 지식의 습득 이외에도 교수자로부터 정신적 감화를 받을 때, 교육의 목적이 최대한 실현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도선언의 목적

붓다는 전도선언을 통해 자신이 실현하고자 한 이상, 곧 깨달음의 사회화를 제시하였다. 불교라는 종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 선언문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전도선언의 목적은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이다. 핵심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이다. 사람들이 얻는 이익과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행복과 이익은 팔리어로 각각 *sukha*와 *hita*이다. 흔히 행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행복,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행복을 뜻하며, 이것은 주로 욕망과 관련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3) 『중아함경』 「시자경」에서는 대아라한들이 붓다의 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대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다. 그대도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汝自年老, 體轉衰弊, 壽過垂訖, 汝亦自應須瞻視者)”(T1, 472a)라고 함으로써, 대아라한들의 권유를 물리친다. 그리고는 아난다가 시자로 천거되자 “비구 아난은 총명하고 지혜로워, 만약에 있을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阿難比丘聰明智慧, 豫知當有識論)”(T1, 472c)라고 말한다. 여기서 대아라한들은 모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다. 그러나 아난은 당시 유학(有學)으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지하듯이, 아난존자는 붓다의 열반 이후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라한이 아라한을 모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ukha)은 욕망을 조건으로 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은 크게 몸에 속한 행복과 마음에 속한 행복으로 구분되며, 전자를 kāyika-sukha 후자를 cetasika-sukha라고 한다.⁴⁾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 행복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익(hita)은 ‘benefit, blessing, good’으로 정의되는데,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관념적인 이익이 아닌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즉, 붓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을 전도선언의 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익과 행복이란 무엇일까. 전도선언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지혜를 갖춘 자가 되는 것’이다.

‘지혜를 갖춘 자’에 해당하는 팔리어는 aññātar이다. aññā는 사전적 의미가 “perfect knowledge, philosophic insight, knowledge par excellence, viz. Arahantship”⁵⁾이다. 따라서 aññātar는 ‘최고의 앎/통찰/지혜를 증득한 자’라는 의미이다. 즉, 붓다가 말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이란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붓다는 45년간의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자신과 같은 완전한 해탈/열반을 성취하길 바랐다.

전도선언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한 선언문이다. 불교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이 깨달음의 성취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을 깨달음에 두게 되면 너무 고원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적을 따로 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택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선(善)의 획득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선은 kusala의 번역인데, 그 의미는 “clever, expert; good, right, meritorious”이다. 이 말의 반대는 akusala(不善), 혹은 pāpa(惡)이다. 안옥선은 선(kusala)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kusala)은 (옳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상/진리의 인식·체현, 그리고 특정 성품상태에 도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선은 통념에서처럼 단순한 금지·규율 혹은 강제·구속이 아니며, 도덕법칙이나 공리로 단순화되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서 선의 요체는 ‘탐진치가 지멸된 상태에서의 청정한 성품(saṅkhāra/行)’으로 발현되는 것이다(Ahn, 2007: 56).

안옥선의 말처럼, 선의 획득은 깨달음/열반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선의 내면화에 힘쓰는 것이 ‘이익과 행복’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불교의 영성 개념을 바로 이 선(kusala)에서 찾을 수 있다.

4) PTSD. sv. sukha

5) PTSD, sv. aññā

Ⅲ. 종교성 상실과 탈종교와의 관계

탈종교 시대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한, 무종교시대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거나 더 이상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논의 하기 전에 종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종교의 정의가 불교에 통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종교의 출현을 ‘허구의 등장’에서 찾는다. 토테미즘은 자연물이나 동물을 상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원시 신앙체계이다. 자연물이나 동물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허구’이다. 그는 종교를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의 체계’(Harari, 2016: 326)라고 정의한다.⁶⁾ 불교는 이 두 개념을 갖고 정의할 수 있을까.

‘허구의 등장’을 중심으로 두면, ‘신(God, gods)’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지만, 존재한다고 굳건하게 믿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야말로, 하라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관념적 산물인 ‘허구’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인적 질서는 창조주인 신의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보편적 자연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선 불교는 절대자가 아닌 ‘신’ 혹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절대자로서의 ‘신’의 존재는 부정한다. 즉 불교는 허구적 존재를 기반으로 성립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초인적 질서를 보편적 자연 질서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불교는 “사성제(四聖諦), 연기(緣起), 삼법인(三法印)과 같은 보편적 진리를 기반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일련의 가치 체계”이다.

이러한 불교의 정의를 기반으로 불교의 ‘종교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선행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조기룡은 “종교성(宗教性)이란 신(神) 또는 진리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포교란 인간들이 붓다의 가르침[佛法]에 의존하여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Cho, 2019: 163).”라고 했다. 황옥자는 종교성을 “종교적 대상

6) 종교의 정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Britannica사전의 정의를 보자. “Religion, human beings’ relation to that which they regard as holy, sacred, absolute, spiritual, divine, or worthy of especial reverence. It is also commonly regarded as consisting of the way people deal with ultimate concerns about their lives and their fate after death.”(<https://www.britannica.com/topic/religion>) 또 Ninian Smart(니니안 스마트)가 제시한 7가지 종교의 정의도 참조할 만하다. 그는 “① 실천적이고 의례적인 차원 ②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차원 ③ 서사적(narrative)이고 신화적인 차원 ④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 ⑤ 윤리적이고 법제적인 차원 ⑥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 ⑦ 물질적인 차원”으로 종교를 정의한다(Keown, 2020: 22). 니니안의 정의는 종교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니안은 불교는 이 7가지 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교의 여러 가지 차원들 중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코끼리의 한 부분에만 매달리는 장님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셈”(p.37)이라고 지적한다.

또는 가치를 지향해서 지적(개념적, 의식적) 내용을 가진 복잡하고 영속적이고 통합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Hwang, 2007: 268)한다. 고진호는 “종교성이란 종교에 내재된 종교적 본질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라는 의미와 특정 종파와 교리체계를 떠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연관, 믿음, 헌신, 외경과 같은 보편적인 종교적 속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Ko, 2006: 18)”로 정의하면서, 종교성을 영성보다 외연이 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불교의 종교성을 논할 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낸 ‘전도선언’의 내용을 토대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볼 때, 전도선언의 맥락과 가장 유사한 것은 조기룡의 정의이다. 그러나 안옥선이 제시한 선(kusala)의 의미를 기반으로 종교성을 논한다면, 고진호의 정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의 종교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 우선 전도선언에서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연민, 범행, 지혜를 갖추”를 핵심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민심을 키워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올바른 도덕성을 기반으로 깨달음을 지향해 가는 것”을 불교의 종교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체화 되는데, 첫째는 타인의 행복, 둘째는 자신의 완성이다. 즉 전도선언의 내용을 통한 종교성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내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정의는 후대 대승불교가 흥기한 뒤에, 보살의 이상적 이념으로 제시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과 정확히 그 뜻이 일치한다. 즉, 전도선언을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kusala)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종교성의 개념을 살펴보자. 앞서 안옥선은 선을 “옳은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상/진리의 인식, 체현, 그리고 특정 성품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성품상태란 ‘탐진치(貪瞋癡)가 소멸된 상태, 즉 열반’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다. kusala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PTS 사전에서 제시한 다양한 용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kusala의 의미를 Cousins(1996)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⁷⁾

- a) is morally/spiritually healthy in being unaffected by defilements, i.e. by greed, hatred or delusion.
- b) is faultless in being free of defilements.
- c) destroys contemptible states.
- d) in the case of kusala states connected to knowledge, and perhaps less directly in other cases, is produced by skill, by wisdom.
- e) more generally, it ripens in happiness

이것은 안옥선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의미이다. 즉 kusala는 “번뇌에 물들지 않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며, 지혜와 연관된 상태”이다. 열반이 ‘욕망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7) 이것은 Peter Harvey(2010: 198)에서 재인용한 것임.

불견전한 정신적 근원으로부터의 해방(Anālayo, 2014: 284)’으로 정의되듯이, 번뇌에 물들지 않은 상태가 곧 열반의 상태이다. 그래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인식과 체현’이라는 안옥선의 정의가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불교의 종교성은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는 황옥자가 말한 “종교적 가치를 지향해서 지적(개념적, 의식적) 내용을 가진 복잡하고 영속적이고 통합적인 감정 상태”⁸⁾와 비교해 볼 만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불교의 종교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

- 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내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
- ②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

1. 종교성(religiosity)과 영성(Spirituality)의 관계

‘영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더구나 탈종교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영성이 주목받는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제도화된 종교와 개인의 종교 체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것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표현한다(Seong, 2017: 13).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성’이 사용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아직은 이 용어의 사용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성이란 말이 인도종교에서 말하는 아뜨만(Ātman)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절대 불변의 영혼을 상징하는 실체론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Kim, 2010: 166)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영성이 기독교 용어라는 선입견이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통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원리를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Seong, 2017: 15).

한편 인경스님은 『대보적경(大寶積經)』에서 처음으로 ‘영성(靈性)’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 대승경전이 성립되는 2~3세기 후반에서 6세기경에 『대보적경』이 성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톨릭 사전에서는 영성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5세기 경이고,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144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Inkyoung, 2011: 511). 그렇다면 ‘영성’이란 용어는 문헌의 성립을 놓고 보면 불교가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

8) 사실 황옥자의 정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종교의 핵심은 “개인이 보이지 않는 차원과 형성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William James, 1994: 36).

다. 하지만 그 시기를 논하지 않더라도 영성이란 개념은 불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각기 발생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제 종교성(宗教性)과 영성(靈性)의 관계를 살펴보자. 앞서 종교성의 개념을 고찰할 때, 고진호는 종교성이 영성보다 큰 개념이라고 했다(Ko, 2006: 18). 그런데 성해영은 ‘종교’나 ‘종교성’과 ‘영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영적인 갈망이란 시공의 맥락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진리를 개인이 직접 발견하려는 개인주의적인 시도이므로, 제도 종교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종교성과 영성의 구분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Seong, 2017: 14).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영성은 종교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일어난 종교적 경험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종교성과는 관련없는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다면, 이때는 종교성과 영성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탈종교화의 원인으로서의 종교성

탈종교화는 종교현상이자 사회현상으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교현상으로 놓고 보면 종교의 ‘종교성 상실’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사회현상으로서가 아닌 종교현상으로서의 탈종교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종교인의 비율이 52.9%에서 43.9%로 대폭 줄어들었다.⁹⁾ 앞서 제시한 갤럽의 자료를 보면, 2021년 현재 종교인 수는 다시 40%로 줄어들었다. 6년 사이에 3.9% 줄어든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무려 60%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사회는 무종교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불교는 앞서 [도표 2]에서 보았듯이, 2004년 24%에서 2021년 16%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교인 총수의 감소는 불교인의 감소와 궤를 같이한다. 같은 기간 개신교는 21%에서 17%로, 천주교는 7%에서 6%로 감소하였고, 10대와 30대까지의 젊은 층은 12%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탈종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세속화’이다. 세속화는 다시 종교소멸론의 입장인 ‘세속화론’과 점진적 쇠퇴를 주장하는 ‘신 세속화론(neo-secularization theory)’으로 구분된다(Song, 2005: 125, 133). 그러나 소멸론에 반하는 증거들이 대두되면서 종교 소멸의 입장인 세속화론보다는 점진적 쇠퇴를 주장하는 신 세속화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 세속화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 중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세속화를 종교적 의식, 행위 및 제도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게 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분화, 합리화,

9)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자료=통계청(<https://kostat.go.kr/ansk/>)

그리고 현세성(worldliness)을 원인으로 신 세속화가 일어난다고 분석하는 것이다(Song, 2005: 133-134).

한편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의식 변형의 체험과 영적 통찰이고, 둘째는 내면의 온전성 회복이다(Seong, 2017: 17). 이 두 가지 영성의 내용은 종교의 테두리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탈종교화가 가지는 특징 중, 역설적인 부분을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명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의 구독자는 대부분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 템플스테이나 MBSR등과 같은 힐링형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¹⁰⁾. 여기서 바로 제도화된 종교성과 개인적인 영성이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eong, 2017: 18).

이처럼 개인의 영성에 대한 추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가 갖는 고유의 본래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불교의 경우, 2장에서 규정한 불교의 ‘종교성의 상실’이 오늘날 불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젊은층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종교는 그동안 점유했던 절대적 위치에서 내려와 다른 사회영역들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힘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힘과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 믿음을 추구하며, 종교는 공동체(국가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세계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행위를 해석하는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다만 이전에 누렸던 절대성을 상실했으며,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야 하는 다양한 이념(혹은 신념체계) 중 하나이다. ... 중략 ...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사적영역에서 경험과 공적영역에서의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이 선택한 혹은 직면한 의미체계로서 종교에 대한 인식과 공적영역에서 전개되는 종교의 활동들에 대한 평가가 결합하여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형성된다(Lee, 2023: 203).

이명호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불교는 사적영역에서는 친근감과 호감도가 높지만, 공적영역에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매력없는 종교라고 진단한다(Lee, 2023: 214).¹¹⁾ 이는 종교로서 불교는 그 종교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0) 이명호의 “최근 불교의 선 수행, 즉 명상에 대한 접근에서도 개인주의적 접근을 보완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은 낮지만, ‘명상’을 매개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인 관심이나 명상 체험으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 및 해석 체계로 선택되어야 한다(Lee, 2023: 214).”는 말은 주목할 만하다.

11) 그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 자료집』을 인용하고 있는데,

붓다 당시 불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는 붓다의 정각 이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북인도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교로 성장한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종교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앞서 전도선언과 선(kusala) 개념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불교의 ‘종교성’은 다음 두 가지이다.

- 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내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
- ②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

①에서 ‘모든 존재의 행복 추구’는 사회성과 치유를, ②의 ‘내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통찰을 나타낸다. ②에서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는 내면의 온전성을, ‘진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통찰을 나타낸다. 즉 ①은 종교성, ②는 영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¹²⁾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급격하게 불교 신도가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종교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붓다의 정각 이후, 불교는 경이로운 속도로 북인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전도선언에서 나타난 종교성이 100%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즉, 불교가 다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은 본래의 종교성을 회복하는 길 밖에는 없다. 한 종교의 성장 여부는 대중성 확보를 위한 홍보나 획기적인 포교 방법에 우선하여, 개인과 사회에 강력하게 미치는 건강한 종교성에 기인한다.

IV. 불교의 영성교육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고통의 완전한 종식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나는 오직 이것, 곧 고통과 그것의 소멸만을 제시한다(Keown, 2020: 90).” 이것을 갖추어서 말하면 사성제가 된다. 고통은 고성제(苦聖諦), 고통의 원인은 고집성제(苦集聖諦), 그것의 소멸은 고멸성제(苦滅聖諦),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를 가리킨다. ‘고멸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팔정도(八正道)이다.

자료에 따르면 친근감은 불교 23.2%, 가톨릭 19.9%, 개신교 19.6%이며, 호감은 가톨릭 24.7%, 불교 23.4%, 개신교 16.2%로 조사되었다(Lee, 2023: 208). 반면 신뢰도에서는 가톨릭 21.4%, 개신교 16.5%, 불교 15.7%로 조사되었다(Lee, 2023: 212)

- 12) 셸드레이크는 “웹을 검색해 보면 영성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는 내면의 경험, 자기성찰, 주관적 여정, 개인의 행복, 내면의 조화 또는 행복을 강조한다.”(Sheldrake, 2023: 16)고 말하면서 “영성 개념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사성제를 배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불쾌한 진리를 꺼리고 “밝은 측면을 보려는” 인간의 경향성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고성제를 극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Keown, 2020: 98). 고성제를 올바르게 보아야만 나머지를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사성제 가운데 팔정도를 중심으로 불교의 영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에서 영성의 의미

앞서 불교계는 ‘영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불교 전통에서도 경전과 선적(禪籍)에서 ‘영성(靈性)’의 구체적인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Inkyoung, 2011: 511ff). 또한 필립 셸드레이크는 불교는 교리보다 영성에 가장 집중하는 종교(Sheldrake, 2023: 25)”라고 언급하며, 영적 여정의 기본으로 앞서 필자가 언급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이제 불교에서 사용되는 영성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성은 한역경전과 선(禪)과 관련된 어록이나 문헌에서 주로 발견된다.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경전이나 논서에서 영성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즉 인도불교 전통에서는 영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영성’이라는 전문용어가 없을 뿐이지, 영성의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앞서 영성의 의미에 부합하는 용어로 kusala(善)를 제시했다. kusala는 보통 도덕적 선함, 건전한, 번뇌에 물들지 않은 도덕적/정신적 상태 등으로 번역된다. 또한 kusala는 “열반의 깨달음을 포함하여 건전한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한다(Anālayo, 2014: 285). 곧 kusala는 좋은 품성, 덕성을 넘어서 깨달음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필자는 영성에 해당하는 용어로 kusala를 제시한다. kusal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

셸드레이크는 현대 영성에 대한 여러 정의를 소개하며 영성은 “전체적인 것, 즉 삶에 대한 완전히 통합적인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신성함(The Sacred)’의 추구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Sheldrake, 2023: 15). 필자가 정의한 kusala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성이 사회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영성은 개인에 최적화된 개념이다.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며, 진리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곧 삶에서 깨달음을 구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영성이 갖는 의미이다.

2. 불교 영성 교육의 내용

이미 필자는 불교 영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팔정도라고 밝혔다. 팔정도는 ‘사성제’ 체계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타난다. 이 ‘팔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영성 교육의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2> 팔정도의 각 항목
<table 2> list of the Eightfold Path

정견 (正見)	정사유 (正思惟)	정어 (正語)	정업 (正業)	정명 (正命)	정정진 (正精進)	정념 (正念)	정정 (正定)
------------	--------------	------------	------------	------------	--------------	------------	------------

팔정도는 사성제 체계에서 고통이라는 현실을 야기한 근본원인인 ‘갈애(taṇhā, 渴愛)’를 완전히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다. 팔정도는 “무지한 일반사람(puthujjana)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 개발해야 할 주된 활동과 특성을 다루고 있다(Anālayo, 2014: 272).”고 설명된다.

먼저 팔정도의 내용부터 알아보자. 팔정도는 말 그대로 ‘고통의 원인인 갈애를 제거하는 여덟 가지 최적의 방법’이라고 풀이 된다. <표 2>처럼 팔정도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때 보통 정견(正見)에서 시작해서 정정(正定)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차적인 수행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팔정도는 어떤 항목을 실천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수행체계이다. 이러한 팔정도의 특징을 톡나트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귀한 여덟 가지 길[八正道, “Arya ashtangika marga”]은 그 길의 여덟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본성을 시사합니다. 그 각각의 요소는 다른 일곱 가지를 포함합니다.(Thich Nhat Hanh, 2020: 80)

팔정도는 보통 해탈도로 설명이 되지만, 경전을 통해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팔정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팔정도는 ‘번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지만,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것(MN.III, p.72; Jeon, 2009: 1295)’으로 설명된다. 경전의 내용은 공덕과 집착이 수반되는 팔정도를 가리킨다. 즉, 팔정도를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공덕을 얻게 되지만, 집착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 직접적인 해탈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성교육의 내용으로 언급하는 팔정도는 바로 경전에서 언급한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팔정도임을 밝혀 둔다.

팔정도의 각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자. 정견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후에 그것들을 확증하는 것, 정사유(正思惟)는 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올바른 생각에 몰두하는 것

을 의미한다. 정어(正語)은 진실을 말하고 사려 깊고 세심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업(正業)은 살인, 절도와 같은 잘못된 신체적 행위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삼가는 것, 정명(正命)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에 연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진(正精進)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상태의 마음을 닦는 것, 정념(正念)은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닦는 것이고, 정정(바른 정신집중/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인격을 통합하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깊은 수준의 정신적 안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Keown, 2020: 109-110).

그런데 이 팔정도는 다시 삼학으로 설명된다. 아래에서는 팔정도와 삼학, 그리고 팔정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표 3>에서 팔정도를 삼학(三學)의 내용인 ‘계-정-혜’의 순서에 맞추어 제시했다. 삼학은 말 그대로 ‘세 가지 배워야 할 내용’이다. 먼저 계율은 앞서 영성을 의미하는 kusala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덕성(virtue)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삶의 토대이며, 다르마에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하다(Keown, 2020: 192).

<표 3> 팔정도-삼학-수행법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s of the Eightfold Path-three disciplines-cultivation of the truth

팔정도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사유	정정
삼학	계율(戒)			선정(定)			지혜(慧)	
수행법	5계 혹은 10계			사정근	사념처	사선정	올바른 생각 확립	사성제

삼학 체계에서 선정(samādhi)은 ‘사정근(四正勤)’, ‘사념처(四念處)’, ‘사선정(四禪定)’의 세 가지이다. 사정근은 정정진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불건전한(akusala)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건전한(kusala) 마음을 복돋우는 노력(Anālayo, 2014: 66)”으로 설명된다. 사념처는 몸·느낌·마음·법의 네 가지로 사띠(sati, 알아차림)를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구체적으로 사띠는 “부지런함(ātāpi)과 분명한 앎(sampajāna)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욕망과 불만족이 없는 마음 상태로부터 도움을 받아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dhamma)으로 향해 있을 때 이 두 가지 정신적 특성들의 결합물인 사띠는 올바른 알아차림이라는 팔정도의 요소가 된다(Anālayo, 2014: 67).”고 설명된다. 사선정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 선정체계로 이를 수행하기 이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akusala) 상태에서 떠남”이다. 마지막으로 지혜에는 정사유와 정견이 포함된다. 정사유는 “욕망의 대상을 떠남에 대한 생각(nekkhammasaṅkappo), 악의를 떠난 생각(abyāpādasāṅkappo), 해치지 않음에 대한 생각(avihimsā-sāṅkappo)(Lee, 2018: 64)”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Anālayo, 2014: 185), 불선(akusala)과 선(kusala)의 뿌리를 잘 아는 것(Lee, 2018: 77),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Lee, 2018: 84)로 각각 설명된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팔정도가 영성 교육을 위한 최상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표 4> 팔정도가 갖는 영성 교육의 특징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Eightfold Path's Spiritual Education

팔정도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사유	정정
삼학	계			정			혜	
특징	도덕적 능력			올바름에 집중하는 능력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능력	

‘계’는 좋은 습관을 익히는 방법이다. 삶의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까르마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나쁜 까르마는 곧 나쁜 습관을 의미한다. ‘정’은 고요함, 집중을 익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은 까르마의 정화를 통해 올바름에 확립할 때 이루어진다. 정 가운데, 정정진은 선을 강화하고 불선을 제거하는 사정근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계를 통해 습득된 좋은 덕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혜’는 선과 불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계와 정을 통해 진행되어 온 변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선’에 자신을 확립시켜, 흔들리지 않는 선한 덕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팔정도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 수행체계이다. 동시에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팔정도의 각각의 내용들은 서로 별개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적 쾌락이나 욕망,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팔정도를 배우는 것은 영성을 구현해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V. 결론

‘무상(無常)’은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덧없음’으로 오해하고,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탈종교는 무종교인들이 늘어나는 사실을 지시하는 매우 무미건조한 용어일 뿐인데, 이를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상의 이치는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교가 이 시대에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 이것을 늦추거나 막고자 한다면, 붓다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되살려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했다. 특히 불교의 입장에서 탈종교, 즉 종교성 상실의 현상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붓다의 ‘전도선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불교의 종교성’의 근원을 ‘전도선언’에서 찾고, 불교의 개념 가운데 바람직한 덕성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쿠살라(*kusala*, 善) 개념에서 ‘불교 영성’의 의미를 찾았다. 종교성이나 영성은 어떤 실체적 관념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에 작용하여 기능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종교성이 제대로 기능할 때,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작용하게 된다. 이를 불교적 관점으로 표현하면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이 올바르게 기능할 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르게 통찰하고 성스러운 존재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불교의 종교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전도선언’이 보살의 이상인 ‘상구보리하화중생’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영성은 불성, 본성, 자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었지만 선(*kusala*)의 개념으로 더욱 적합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불교의 종교성과 영성은 ‘개인의 영적 통찰’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 종교성으로는 사회성과 치유의 기능으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온전성으로 드러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불교 영성 교육의 체계를 ‘팔정도’로 분석하였다. 팔정도를 논리를 기반으로 한 수행체계로 특징짓고, 여덟 가지 각 항목이 별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기능을 통해 개인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대중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위해 불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근원적 성찰이 배제된 특별한 광고나 그럴듯하게 포장된 포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원점으로 회귀하여 붓다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기억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을 바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잊혀진 시대가 바로 ‘종교성 상실의 시대’이고, 오늘날 불교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References

[Abbreviations]

MN : Majjhima Nikaya, PTS

PTSD : Pāli-English Dictionary of PTS

T. : Taishō edition

[Primary Sources]

中阿含經. *Madhyamāgama*. T.1.

[Secondary Sources]

- An, O. S. (2007). Freedom from Good and Evil in Buddhism. *PAN-KOREAN PHILOSOPHY*, 47, 53-85.
- Anālayo. *Satipaṭṭhān*. 이필원, 강향숙, 류현정 공역(2014). *Satipaṭṭhān*; 해탈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Britannica (n.d). Retrieved 2023.9.18. from <https://www.britannica.com/topic/religion>
- Cho, K. R. (2019). Religious Market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Missionary Orientation of Korean Buddhism.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58, 145-175.
- Harari, Y. N. *Sapiens*. 조현욱 옮김(2016).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 Kang, D. H. (2014). A Study on direction of the dharma-transmission in the proclaims to disseminate the teaching -focused on the four-line verse of Seokjon-. *The Association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17, 133-157.
- Keown, Damien. *Buddh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고승학 옮김 (2020). 불교. 서울: 고유서가.
- Kim, E Y. (2017). The Strategies for Missionary Works of Korean Buddhism in the Jogye Order: Issues and Directions, *Journal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 232, 1-23.
- Kim, S. K. (2020). Buddhism's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Post_Religious Age. *Journal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 26-2, 141-158.
- Kim, Y. P. (2010). Religious Spirituality and Buddhism in Postmodern Er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2, 163-189
- Ko, K. H. (2023). Constructing the Concept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987-1002.
- Lee, S. S. (2023).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Buddhism in the Age of Decreased Believers. *The Journal of Buddhist Culture and Art*, 21, 11-36.
- Leslie S. Greenberg and Sandra C. Paivio.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이홍표 역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서울: 학지사.
- Lew, S. M & An. S. J. (2022). The Crisis of Korean Buddhism and Its Response. *Buddhism and Society*, 14(2), 1-29.

- Pāli Dictionary (n.d.). Retrieved 2023.9.22. from <https://dictionary.sutta.org/>
- Peter Harvey. (2010). A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kusala/akusala quality of actions in the Pāli tradi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ume 33 · Number 1-2, 175-209.
- Seong, H. Y. (2017). 'Religion of no Religion' and New Religiosity: Focusing on the Encounter of Secular Mysticism and Depth Psychology. *Religion and Culture*, 32, 1-28.
- Sheldrake Philip. *Spiritua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한운정 옮김(2023). 영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불광출판사.
- Song, J. R. (2005). The Limits of Religious Secularization Theory: In Relation to the Advent of Desecularization Thesis. *Society and Theory*, 7, 121-150.
- Thich Nhat Hanh.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 권선아 옮김(2020). 탁넛한 불교. 서울: 불광출판사.
- William James. (1994).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odern Libraries.
- 갤럽 (n.d.). Retrieved 2023.9.18. form <https://www.gallup.co.kr>
- 미디어붓다 (2015.3.26.). Retrieved 2023.9.18. from <http://www.mediabuddha.net/2015.3.26>.
- 이명호 (2023). 불교에 대한 신뢰도 왜 하락하는가. 불교평론. 제25권 제2호 (translated in English) Lee, M. H. (2023). Why trust in Buddhism is declining. *Buddhist Review*, Vol.25 no.2, 194-215
- 이자랑, 이필원 (2016). 도표로 읽는 불교. 서울: 민족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J. R. & Lee, P. W. (2016). *Buddhism as a Diagram*. Seoul: Minjoksa.
- 전재성 (2014). 마하박가.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2014). *Mahāvagga*. Seoul: Korean Pali Text Society.
- 통계청 (n.d.). Retrieved 2023.10.30. from <https://kostat.go.kr/ansk/>
- 황옥자 (2007). 불교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translated in English) Hwang, O. J. (2007), *Buddhist Theory of Childhood Education*. Seoul: Bulgyosidaesa.